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클드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9년 6월 16일 (제1007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하늘의 왕권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사모한다. 그런데 사모만 할 뿐, 천국에 대해 너무 모른다. 그냥 좋은 곳, 예수 믿다가 죽으면 누구나 가는 곳쯤으로 여긴다. 그러나 천국도 이 땅처럼 철저한 계급사회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그 나라에서는 행한 대로 각기 다른 상급과 영광을 취하게 된다.

가끔 사람들은 내게 말한다. 좀 쉬엄쉬엄 하라고. 그러나 나는 그럴 수 없다. 다 똑같은 상을 받는다면야 나도 쉬어가며 하겠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아주 큰 꿈이 있기에 그럴 수 없다. 바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 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눅22:28~30)는 꿈이다. 그래서 못 놀고, 못 쉬고, 내 스스로를 움츠리며 좁은 길로 몰아가는 것이다.

하늘나라에는 왕 자리가 너무 많이 비어있다. 왜냐? 모르니까 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냥 천국에 입성하는 신안만 배웠기에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살고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핍박과 모함과 고난 중에도 바라고 소원하던 것이 무엇이었던가? 바로 하늘의 왕권이였다. 그것을 바라고 현재의 고난을 감수했던 것이다(롬8:18). ‘하나님 나라 문지기라도 좋다’는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오해해서 그냥 천국 문지기만 만족하고 살 것인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만 되어도 좋으니 왕은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니 그날에 받을 상과 면류관의 꿈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자. 비어있는 왕 자리, 내 것이 되도록!

지난 6월 10일 월요일, 전주예수중심교회에서는 교단의 모든 목회자 및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황해선 목사의 천국환송예배가 진행되었다. 모든 장례 일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날 전국적으로 내린 축축한 비처럼 우리 모두의 가슴을 따뜻하게 적셔주었다.

돌이켜보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살아보자는 올해 목사님의 각오와 바람대로 하나님은 모든 과정에 세심하게 배려해주셨음을 깨닫는다. 황 목사님이 소천하기 하루 전날, 하나님은 스승과 제자가 이생의 마지막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주셨고, 이튿날 임종 직전 전화통화로 천국에서의 재회를

라’(마5:23~24). 원망을 풀고 나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먼저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셨죠(마18:18).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나는 그래서 오늘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교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닐 수 없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환송예배가 아니겠습니까?” 황 목사님이 외병 중에 전주교회에는 박 청직 목사님이 임시로 담임을 맡았고, 황 목사님이 쾌유하게 되면 다시 복귀할 예정이었다. 이럴 때 전주교회 전체에 황 목사님의 외병을 알리고 함께 기도하며 위기를 극복해갔으면 가장 아름다웠을 것

로 용서를 구했다. “마태복음 6장 14절 이하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다. 사모야, 박 목사가 용서를 구하고 있구나.” 그러자 사모님은 조용히 박 목사를 끌어안고 용서하며 황 목사보다 더 큰 목회를 하시라고 말해주는 것이었다. “용서는 능력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늘에 있는 황 목사도 크게 기뻐할 거야. 오늘 진정한 천국환송예배가 되겠구나. 하나님, 감



황해선 목사 환송예배(6월 10일, 전주예수중심교회)

기약하는 대화를 허락하셨다. 그러나 무엇보다 감동스러웠던 것은 환송예배에 앞서 회개와 용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였다. 목사님도 사랑하는 제자를 먼저 보내는 아픈 마음으로 임한 환송예배에 앞서 이토록 감동적인 장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쁘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만한 일이 있는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

이다. 그러나 황 목사님과 사모님은 교회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병 치료에만 집중하라는 뜻으로 그랬지만 교회에 나오는 걸 자제해달라며, 교회 사무실 열쇠까지 바꿨다니 ‘누가 세운 교회인데 이럴 수가 있나’ 하며 얼마나 분노와 원망이 쌓였을까?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목사님은 여러 번민 중에 기도하시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전주교회에 들어오셨는데, 박 목사가 예배에 앞서 목사님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했다. 이에 목사님은 사모를 불렀고, 박 목사는 무릎을 꿇고 사모님께 진심으로

사합니다.” 모든 장례일정을 마치고 사모님은 목사님께 말했다. “목사님, 제가 다시 전주교회에 나가도 될까요?” 목사님은 손사래 치며 말씀하셨다.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전주교회가 누가 세운 교회인데, 당연히 나와야지.” 하시며 사모님을 꼭 안아주셨다. 용서보다 더 큰 능력은 없다. 용서와 화해보다 더 아름다운 일도 없다. 모든 장례일정에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한은택 목사**



황해선 목사 유족들과 함께



황해선 목사 영정



황해선 목사의 유골은 기도원에 안장되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히11:8~16)



영생을 바라며 사는 사람들

지난 8일, 전주예수중심교회를 담임하던 황해선 목사가 소천했습니다. 너무 일찍 간 것이 안타깝고, 또 남겨진 유족들을 생각하자니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소천하기 바로 전에 저는 황 목사님과 마지막 통화에서 “먼저 가 있어야. 나중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갑니다.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누구 말처럼 익은 감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팥감도 떨어지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우리는 곧 본향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황 목사는 그토록 그리고 소망하던 영광의 문, 영생의 문 안에 들어갔습니다. 고통이 없고, 아픔도 없고, 근심도 없는 그곳, 더욱이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갔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잠시 헤어지는 아픔은 있지요. 그립겠지요. 그러나 마냥 슬퍼할 일만이 아닌 것은 늘 사모하던 본향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조금 먼저 간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히11:16).

여러분도 늘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고 계시지요? 그 소망 때문에 주일에 쉬지 않고 교회 나오고, 밤에 안 자고 철야예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우리는 늘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일을 만나든 거뜰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4:7~8)고 고백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힘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오직 그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았기 때문에 고난으로 점철된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장차 갈 그 나라, 장차 받을 상을 생각하면 현재의 고난이 어떠한 대수롭지 않았던 것입니다(롬8:18). 우리의 마음에도 그 소망으로 꿈을 거역해야 합니다.

오늘의 계란을 먹지 말고 내일의 암탉을 키워라

마태복음 13장에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산 자와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좋은 진주를 산 자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덜 좋은 것을 버릴 줄 아는 참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더 좋은 세상과 영생의 소

망을 알았기에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함과 같이 말입니다(빌3:8~9). 정말 좋은 진주를 보고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고도 덜 좋은 자신의 것을 내던지지 못하는 자는 바보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직접 가르쳐주셨는데도 자신의 돈을 놓지 못한 부자청년이 그런 사람입니다(마19:16~22).

여러분, 이 세상은 나그네 길입니다. 잠시 사는 인생입니다. 130년을 산 야곱도 나그네 인생임을 고백했습니다(창47:9). 인생은 잠깐 피는 풀의 꽃과 같고, 풀도 꽃도 다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벧전1:24). 그러나 내 세는 이생과 시간의 비교가 불가한 세계

상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의 일로 울고불고 합니까? 인생의 것 때문에 영원한 세상의 것을 못 잡습니까? 언제 갈지 모르는 것이 인생인데요, 팥감도 떨어지는 데요. 본향을 붙잡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을 놓고 보이지 않는 것을 얻어야 합니다. 팔죽을 못 먹어서 허기가 지고, 굶어죽어도 장자권은 지켜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울, 아간, 발람 선지자처럼 이 세상에 열중하면 본향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 영원한 소망을 놓친 겁니다. 또 솔로몬처럼 임종을 앞두고 깨달아도 너무 늦습니다. 내세를 준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바보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시점부터, 지금부터라도 사후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들어서고 나서야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고난과 고통의 길이요 인내해야 하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나

안 입성이라는 소망을 든든히 붙잡았더라면 그들은 그 고난을 이겨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리자 원망불평하며 차라리 종살이하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평안이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길을 평야 같은 넓은 길이 아님을 예언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

이니라”(마7:13~14). 이 좁고 협착한 길을 잘 통과하는 방법은 영생의 소망

을 품고 가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작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족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히11:35~40). 믿음의 전당에 오른 믿음의 선전들이 걸 어간 신앙의 길은 이처럼 우리가 받는 핍박과 고난과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은 것은 영생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믿음의 선전이 받은 고난보다 아주 경한 고난에도 잘 넘어지고 침륜에 빠질까요?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육이 건강하려면 잘 먹어야 하듯 영혼의 건강도 잘 먹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이나 먹는 게 아니라 아주 좋은 것을 먹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4:4). 또 그 분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이 솟아나게 하는 샘물을 마셔야 건강해집니다(요4:14). 자기 몸도 못 추스르는 자가 꿈이든 비전인들 갖겠습니까? 영혼도 강건해야 영생의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작은 일에도 넘어지고, 불평하고, 더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상고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영혼의 맷집이 세져서 웬만한 것에 끄덕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 가치 있는 일에 네 인생을 투자하라

장수하는 게 왜 복인 줄 압니까? 오래 살수록 영생의 나라에 쌓을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갈6:7~8). 영생을 위하여 많이 쌓는 자는 영생의 것을 많이 거두게 됩니다. 심은 만큼 내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 법이기에 그렇습니다. 세상 것만 추구하면서 영생을 논하고, 상을 논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는 시점부터 그 날을 위해 그 나라에 차근차근 쌓는 자들이 됩시다. 또한 우리 삶의 축이 예수가 되게 합시다. 세상을 축 삼아 교회는 가끔 나들이하는 곳으로 여기면 영생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가 축이 될 때 데마처럼 세상으로 나가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날에 받을 면류관과 상을 바라다보며 오늘 열심히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삽시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간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고후4:17~18).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 겨자씨만한 믿음 ::

인생은 생방송, 문자는 녹화방송

인생은 일생(一生)이다. 한 번뿐이라는 것이다. 그것도 생방송으로 살아가야 한다. 생방송이라서 역동적이고 흥미진진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생방송이라서 NG가 나면 돌이킬 수 없어 힘든 일이 많이 생긴다는 단점도 있다. 연극은 연습이라도 해보고 하지만, 인생은 연습도 없고 각본도 없는 생방송이라 긴장감 넘치고 스틸이 있지만 때론 안타까울 때도 많다. 인생이 녹화방송이라면 얼마나 여유가 있고 편할까. 잘못 말하거나 잘못 행동한 것이 있으면 편집해서 좋은 것만 보여주면 될 테니까 말이다.

사도 바울의 지혜를 잠깐 엿보자.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서 설득해보려 했으나 생각대로 되지 않아 잠시 마게도냐에 다녀오겠다고 하고는 마게도냐로 떠나서 다시 돌아가지 않고 편지로 간곡히 부탁을 한다. 직접 대면하는 생방송보다 낱끄러운 일을 녹화방송인 편지로 다듬어서 간접한 마음과 사랑을 담아 눈물로 호소한다. 그리고 그것이 먹혀서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을 열고 바울에게 순종하기로 결정했고,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소식을 디도로부터 듣고 바울은 크게 기뻐하고 감사했다. 생방송보다 녹화편집방송이 더 효과가 있었던 것일까(고후1:23, 고후2:4, 고후7:5~16).

하나님도 인생들에게 직접 대면하시기 전에 사랑의 편지인 성경을 보내셨다. 당

신의 본질적인 사랑을 구구절절이 편집해서 보내신 것이다. 그리고 만나주시니 훨씬 편안하실 것이다. 바로 죄악된 인간들을 직면했다면 노아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수없이 쓸어버리실 수 있었으리라.

요즘은 참 좋은 세상이다. 옛날처럼 편지로 오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불과 몇 분이면 문자로 소통할 수 있다. 생방송보다 좀 더 편안하고 편집 가능하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문자가 보편적인 세상이니 얼마나 좋은가! 직접 전화하기 전에, 직접 대면하기 전에 차분히 거르고 거른 문자로 상대 마음에 상처 주지 않고 감동 줄 수 있는 글로 사람을 먼저 만난다면 참 지혜로운 처신이라 할 수 있겠다. 불편한 관계라면 문자를 먼저 사용해보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처럼. 야곱이 에서를 대면하기 전에 압박강가에서 기도하고, 종들의 선물행렬과 처자식들의 행렬을 앞세워 좋은 말을 그의 형인 에서에 전하여 듣고 나서 대면하니 원수 같으려 쫓아 나오던 형이 먼저 마음을 열고 야곱을 끌어안게 한 것처럼.

요즘 누구나 쓸 수 있는 문자의 장점을 잘 활용해보자. 문자의 가장 큰 장점은 녹화편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NG가 나도 교정하여 돌이킬 수 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다”(잠4:6~7).

이시대 목사

:: 신앙논객 ::

깨끗하지 않으면 쓸 수 없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 되리라”(눅12:2~3). 예수님의 말씀이 뼈저리게 와 닿는 요즘이다. 정치인이며, 경제인이며, 연예인이며, 종교인이며 할 것 없이 그들이 과거에 은밀하게 저질렀던 비(非)윤리적이고 비(非)도덕적인 일들이 기술의 발전과 피해자들의 인식전환으로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그들이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았던 탑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촬영과 녹음이 가능한 스마트폰으로 인해 대중들은 이제 언론의 소비자가 아닌 ‘걸어 다니는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는데 반해, 대중들이 드러나는 이들에게 요구하는 윤리·도덕적인 기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하물며 산 위에 있는 동네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오죽하겠는가. 그래서 그럴까? 총회장 목사님께서 몇 주 전 설교에 “목회하는 지난 35년

동안 핍박과 환난과 모함을 견디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남의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살 것인가를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하신 말씀이 계속 와 닿는다. 목사님은 윤리·도덕적으로 흠을 잡히지 않기 위해 기도를 쉬지 않으시고 자신과 싸우며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뿌리치셨다. ‘큰 자가 되기 전에 먼저 깨끗한 자가 되라’는 말씀을 몸소 실천에 옮기며 우리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계신 것이다.

IQ(지능지수), EQ(감성지수), AQ(역경지수)가 사람들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다면, 이제는 점점 MQ(도덕지수, Moral Intelligence Quotient)가 강조되고 있는 시대인 듯하다. 그릇이 아무리 값이 비싸도, 크기가 커도, 모양이 아름다워도, 다방면에 실용적일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쓸 수 없다. 우리 또한 목사님처럼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나는 지금 깨끗한 그릇인가?’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오래 참는 사랑

“사랑은 오래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고전13:4).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에 대한 정의가 잘 나와 있다. 가장 먼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 말씀하셨다.

그러나 요즘 세상은 참는 것에 큰 가치를 두지 않는다.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초고속 인터넷망이 전국에 깔렸고,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즉각적인 교류를 갖는다. 실시간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글과 사진을 올리고, 올린 글은 친구들에게 즉각적으로 알림이 가고, 상대는 다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다. 지금 우리 삶을 구성하는 기술들이 우리를 즉각적으로 표현하고 반응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럴까. 인터넷이 잠시 안 되면 난리 법석을 떠다.

그러나 적어도 ‘사랑’이라는 관점에서는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오

래 참는 것이 사랑이며, 서로 사랑하라, 상대에 대해 오래 참아주라고 말씀하신다. 5G처럼 빠른 반응과 응답을 원하는 현대인에게 누군가를 오래 참아주는 일은 쉽지 않다.

그렇지만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오래 참아줄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토록 참아주신 것처럼. 죄를 짓고 회개하고 다시 죄를 짓는 우리를 참아주실 뿐 아니라 사랑으로 품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은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내 친구에게 오래 참아주는 것을 말한다. 잘못을 했을 때 버럭 화내지 말고 참아주고, 답장이 느려도 ‘무슨 사연이 있겠지.’ 하며 참아주고, 약속 시간에 조금 늦어도 좀 참아주자. 그러면 우리 사회가 더 아름답게 변화되지 않을까.

김성일 성도



:: 생명의 말씀 ::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자연세계를 뛰어넘는 ‘초자연’의 세계를, 우리는 흔히 ‘기적’이라 부른다. 기적의 세계는 설명 불가의 사건들로 가득하다. 유한한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무한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할 말을 잃게 된다. 그러기에 기적적인 사건들은 우리의 메마른 신앙에 역동성을 더해준다. 그런데 기적을 신비주의로 폄하하거나 또는 성경에서 아예 삭제하려는 자들이 있다. 이는 신앙생활을 사변적으로 메마르게 만들거나, 도덕적 종교로 변질시키는 위험한 극단들이다. 그래서 우리에게겐 말씀에 더해, 기적이 늘 필요하다.

자연과 초자연으로 구분하는 우리 인간의 안목은 하나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초자연은, ‘또 다른 자연’에 불과하다. 오병이어의 빵은 초자연적 기적을 통해 만든 빵이지만 그냥 놔두면 다시 썩게 되는 자연적인 빵이다. 동정녀의 잉태 자체는 초자연이었지만 출산의 과정은 자연이었다. 이미 죽은 나사로는 살아났으나 다시 자연적으로 죽었다! 하나님의 기적은 늘 자연과 하나 되어 일하신다. 자연도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그분에겐 자연과 초자연의 경계가 없으시다. 그분

이 섭리하시는 세계는 인과관계를 뛰어넘는 기적으로 가득하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 것, 십자가 구원이 믿어지는 것, 억압하는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것, 마지막 때 부활의 몸을 입는 것, 천국이라는 또 다른 자연 세계로 가는 것 등등 기적이 아닌 것이 없다. 영적 세계가 물질세계를 이끌어가는 것 자체가 신비이자 기적이다(히11:3). 특히,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가진 ‘이성’의 능력은 초자연의 가장 명백한 법칙이자 증거이다. 자연 세계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 주기만 하나, 자연에 개입하여 의미를 붙여넣고 상황을 주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인간만이 가진 특권이다. 그래서 성령에 조명된 이성과 말의 권세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인 것이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 세계를 함께 누리며 살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기적은 늘 우리 가까이에서 반드시 존재하며, 우리는 기적을 늘 일상으로 경험하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이다.

송지화 목사
jesus_allinall@hanmail.net

:: 교단소식 ::

:: 귀를 기울이세요 ::

사랑과 행복에는 커트라인이 없다



제4회 2040 젊은 부부 세미나가 ‘성공, 그 이상의 가치를 배우다’라는 주제로 6월 8일 토요일, 상암 DMC 누리꿈스퀘어 3층 국제회의장에서 총회장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되었다.

5백석을 가득 메운 예수중심 청장년 부부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입장하신 목사님은 ‘초청해줘서 고맙다’고 먼저 인사하신 후, ‘사랑과 행복에는 커트라인이 없다’는 제목으로 말씀하셨다.

“부부(夫婦)의 한자를 보면 지아비 부(夫)는 사람 인(人)자가 두 개 겹쳐져 있고, 아내 부(婦)는 계집 여(女)에 비질할 주(帚)자로 되어 있다. 가정은 혼자 일굴 수 없다는 뜻으로, 여자가 가정에 있는 나쁜 것을 다 빗자루로 쓸어내며 가정을 지킨다는 뜻이다.

어떤 경기나 어떤 단체에든 룰이 있듯이 가정에도 룰이 존재한다. 그 룰은 황금률이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마7:12). 남편을 남편으로 대접하고, 아내를 아내로 대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로 인격모독이나 하고, 서로 하대한다면 어찌 되겠는가. 룰 위반이다. 경기 중 위반하면 경기장 밖으로 퇴장된다. 가정 룰을 위반하면 가정에서 쫓겨나고 가정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송은 30여 년 전에 작사한 것이다. 제주도 중문단지 해변에서 밀려오는 파도를 보고 있었는데 바위는 그 파도를 맞받아치고 난 후 눈물을 흘리고 있는 반면, 모래는 거센 파도를 다 품에 안아 들이며 방글방글 웃는 것을 보고 작사했다. 받아주고 포용하는 모래와 같은 사랑이 있어야 가정이 유지된다. ‘무슨 사연이 있겠지, 무슨 까닭이 있겠지.’ 하며 모래처럼 이해하고 받아준다면 어느 남편이 세상으로 나가겠고, 어떤 아내가 밖에서 헤매겠는가. 요즘 가정에는 대화가 없다. 제발 동가숙서가식(東家宿西家食) 하지 말고 서로 대화해라. 어느 기자가 한 성공한 CEO를 만나러 갔는데, 그 CEO가 하는 말이 ‘VIP를 만나야 하니 오늘은 면담할 수 없다’고 했다. 그 기자는 이 정도 사람이 VIP라고 하면 대통령이나 정계인사 쯤 되겠거니 생각했다. 그런데 그 CEO가 하는 말이 ‘오늘은 내 아내와 아이들과 저녁약속이 있다.’고 해서 그 기자는 깜짝 놀랐고, 많이 깨달았다고 한다. 맞다. 가장 귀한 것은 내 가족이다. 그 중에서도 부부가 제일 귀하다. 아파 누워봐라. 긴병에 효자는 없어도 아내나 남편은 끝까지 병석을 지킨다. 그러므로 서로를 귀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리고 부탁하건데 가능하면 이혼은 하지 마라. 둘은 갈라지면 그만이지만 아이들이 온전하게 자라지 못한다고

부부는 적게는 20년에서 30년 이상을 다른 환경에서 살던 사람이 만난 것인지를 서로 많이 다를 수밖에 없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임을 인정할 때 이해할 수 있다. ‘오 모래여’ 찬

전7:14). 평생 가슴 친다. 또 자식 위한답시고 기러기 아빠 되지 마라. 분방해도 마귀가 틈탈진대, 장기간 떨어져 있으면 문제가 발생하게 됨은 자명한 일이니까(고전7:5).

아직 미혼인 사람들은 배필을 고를 때 외모 등 외적인 것만 보지 말고 마음이 맞는 자, 생각이 맞는 자, 신앙이 맞는 자를 찾아야 한다. 신발은 작아도, 커도 불편한 법, 신발이 맞아야 오래 걸을 수 있다. 그리고 결혼에 한 번 실패한 사람은 경험을 한 것이니 좌절 낙담할 필요가 없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2040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당부할 것이 있다. 먼저는 자기에게 맞는 일, 취미처럼 신바람 나는 직업을 찾으라. 둘째, 무슨 일에도 대충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습관을 들여라. 셋째, 세상사 기를 치면 잘 돌아가게 됨을 알아 선물을 활용하는 지혜를 얻어라. 넷째, 만사 덤비지 말고 신중하고, 멀리 보고 크게 생각하라. 다섯째, 나에게 투자하고, 배우는데 투자하여 오늘의 계란을 먹지 말고 내일의 암탉을 기르는 자들이 되라.

행복도, 성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다. 돈으로, 권력으로 행복한 가정을 살 수 없다. 그러니 남편은 약육강식하는 동물처럼 굴지 말고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손톱 세우지 말고 주님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길 소망한다.” 가정이 등한시 되고, 가족의 의미가 상실되어 가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었다. 가화(家和) 후에 만사성(萬事成)이다. 예수중심의 청장년들이 모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 많은 이들의 모범이 되고, 그것으로 예수가 증거되기를 바란다.

신묘수 전도사

:: 성경에서 배운다 ::

기도로 잡은 손

영하 50~60도 혹한의 눈보라가 몰아치는 남극에서 펭귄이 얼어 죽지 않고 생존하는 비법 중 하나는 바로 허들링(huddling)입니다. 무리가 한데 모여 몸을 비비며 서로의 체온을 나누다가, 무리 중심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를 나눠 받은 펭귄이 맨 바깥쪽 펭귄들과 자리를 바꾸어주며 함께 혹한을 이겨내도록 돕는 것이지요. 미물인 펭귄도 예외 없이 배려하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며 무리의 공동생활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섬기는 부서에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이 팀을 섬기며 우리는 서로의 영혼이 살아나고 믿음이 견고해지며, 지체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는 교단과 목사님, 부서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가고, 그 기

도제목에 응답하셔서 예수를 영접하여 성령을 받는 영혼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워 할 말을 잃곤 합니다.

또한, 아픈 아이들을 위해 합심기도를 하면 금세 깨끗함을 얻고, 업무에 닥친 위기들이 생각지 못한 방법과 계시로 풀려 나갔으며, 입을 크게 벌리고 싶은 기도제목들이 거짓말처럼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함께 지켜보다 보니 믿음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은 물론이요 기도에 대한 갈망들이 더욱 진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웃는 자와 진심으로 같이 웃는 방법’이 바로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가능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우는 자와 같이 울기는 쉽지만, 웃는 자와 같이 웃는 것이 진짜 어렵다고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질투에는 휴일이 없다는 속담들처럼 우리 안에 숨 쉬는 죄의 속성 때문에 누가 잘 할 때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합심하여 중보기도를 하면 달라 집니다. 내가 진심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사람보다 더 그의 성공과 축복을 소망하게 되고, 막상 응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뽀듯 기쁜 것은 물론이요 그날의 피로, 내 눈앞의 어려운 문제들까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덧붙여 기도도 손잡고 함께 합심한 우리의 음성을 빠짐없이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모습은 성도간의 수평적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해 수직적 사랑을 완성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주신 예수님처럼(마11:28),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갈6:2)는 바울의 교훈처럼 서로를 위해 기도도 손잡고, 영적인 허들링으로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봅니다. 할렐루야!

하인명 집사

우리 근처에 있는 욕

더없이 행복한 결혼생활, 첫 딸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을 나오는 날 들려온 남편의 대장암 4기 소식, 시어머니의 갑작스런 죽음, 그리고 남편의 항암치료가 종료된 지 일주일도 채 안되어 알게 된 아내의 혈액암 4기 소식. 잠시 숨 쉴 틈도 없이 몰아치는 일들이 한순간, 한 가족에 닥친 일이다. 이것은 실화로 2017년 KBS 스페셜 ‘얕’을 통해 방영된 다큐멘터리이자 최근 개봉한 기독교 영화 ‘교회 오빠’의 내용이다. 부부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하는 모습은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하나님, 이러다 우리 가족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라고 어느 교회에서 울면서 간증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그가 현대판 ‘욥’이라고 느꼈다.

사실 종교적인 색채가 짙은 이 다큐멘터리가 공영방송인 KBS에서 방영되었다는 것은 기적같은 일이었다. 이진 남편의 ‘저의 간증들이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다.

항암치료가 끝나고 연속적인 암의 재발 가운데서도 남편과 부인은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는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욥2:10).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서 부부는 항상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하고 부부만의 QT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체험한다. 심지어 남편은 고통스러운 암치료 중에도 끝까지 진통제를 맞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버틸 수 없고, 그 육신의 고통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임재를 느끼며 참된 영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 이란다. 끝으로 남편은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짧은 시간에 너무 큰 고난을 연달아 받아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구나.” 영화를 통해 다시 한 번 깨닫는다.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거리이다. 믿음의 눈으로 고난에 가려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자.

송현혜 성도

